

승리제단 성도들부터 죽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영생의 피로 변하고 세포가 변하게 됩니다 의인이 되면 감로의 빛이 방출되어 만물과 사람들을 영생의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죽지 않는 시대가 승리제단에 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역곡제단에서 죽음이 없어집니다. 두번째는 한국 땅에서 죽음이 없어집니다. 세번째는 이 지구 땅 위에서 죽음이 없어집니다. 해인가(海歌)를 비롯한 격암유록 전편(全篇)에도 감로(甘露) 이슬성신을 먹으면 죽음이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이사야 26:19)' 즉 이슬성신을 내리는 구세주가 나오면 죽음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경 열반경 6권에는 감로를 불사(不死)의 약(藥)이며, 감로를 먹으면 죽은 목숨이 살아나고 수명이 늘어난다(열반경 8권)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없어지면서 사람을 낳는 일도 점점 없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집 장가 가 봐야 어린 아이가 안 생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루어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어린이가 생길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죽는 시대가 승리제단에서는 끝났습니다. 죽음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먼저 승리제단 식구들부터 죽지 않게 되고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어 한국 땅에서 죽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염려의 말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왔

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만민들이 죽지 않는 시대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조차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날까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구 땅 위에서 완전히 죽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야! 신기하다. 이 누가 왜 안 죽는지? 이 풀이 왜 안 죽는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망의 신을 완전히 '이 사람'이 청소해서 없애버리는고로 죽음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에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 거의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영생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반대생활을 해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앞서서 죽지 않는 불사체(不死體), 영생체(永生體)로 이루어지던 온 세상 만민들도



구세주 조희성님

차례대로 죽지 않는 사람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불경에는 영생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 즉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지 영생이 없다면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디도서 1장 2절)' 즉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고로 영생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성경에서 영생을 빼면 성경책은 생명이 없는 책이 되어 버립니다.

성경에만 영생이 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불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로는 불사(不死)의 약(藥)(열반경 6권)이며, 감로를 먹으면 죽은 목숨이 살아나고 수명이 늘어난다(열반경 8권) 즉 감로를 받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열반경 9권에는 '대열반광(감로수)이 중생의 털 구멍으로 들어 가는 자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로를 받으면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고, 성불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들에게서는 감로의 빛이 나옵니다

이제 그대로 구세주의 몸에서 감로가 나옵니다. 이 감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권을 빼앗기 때문에 전지전능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로

마귀한테 저서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으로 변했지만 그 죽음의 세상으로 변한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전권을 빼앗아 영생의 하나님의 전권으로 바뀌어진고로 이제 죽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음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나무의 수한(壽限)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감로 이슬성신을 심령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는 오-라(AURA)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에서도 이 오-라가 되는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 사진에는 찍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주파(高周波)를 이용한 촬영기에 의해서 오-라를 찍은 사진을 키일리언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빛이 나오는 것은 사진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감로 이슬성신은 사진에 찍히는 감로성신이 과연 나오는가 의심하며 찍어 보면 찍히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감로 이슬성신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내리게 되고 그 감로 이슬성신을 받은 여러분들도 희미하나마 감로 이슬성신의 빛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에게서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승리제단에 나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피로 변하면 세포가 죽지 않는 세포로 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한 사람의 몸에서 이슬성신인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사람들만 승리제단에 나오게 되지 얼굴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승리제단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대가 옵니다.

영생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 의심을 하는 사람은 꼭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 콧방귀나 귀고 의심을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 확신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 사람'의 말씀이 써가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 밭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이란 것은 바로 영생체인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오늘 인간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회복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살 여러분들은 영생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해부 ①

신과 마귀는 어디에 있는가



신은 무엇이고 또 마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과 마귀는 막연히 인간과는 상관없이 다른 어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마 사람들에게 신과 마귀를 상상해서 그려 보려면 나라마다 종교마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그려 놓을 것이다. 이러한 재밌는 발상을 한 사람이 있는데, B.C 6세기의 편역 시인 크세노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해 흥미롭다. "에티오피아인은 그들의 신들을 메부리코의 흑인으로 생각하고, 트라키아인의 신은 푸른 눈과 붉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소나 말이 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소는 소와 같은 신을 그릴 것이고, 말은 말과 같은 신을 그릴 것이다. 신들은 네 개의 발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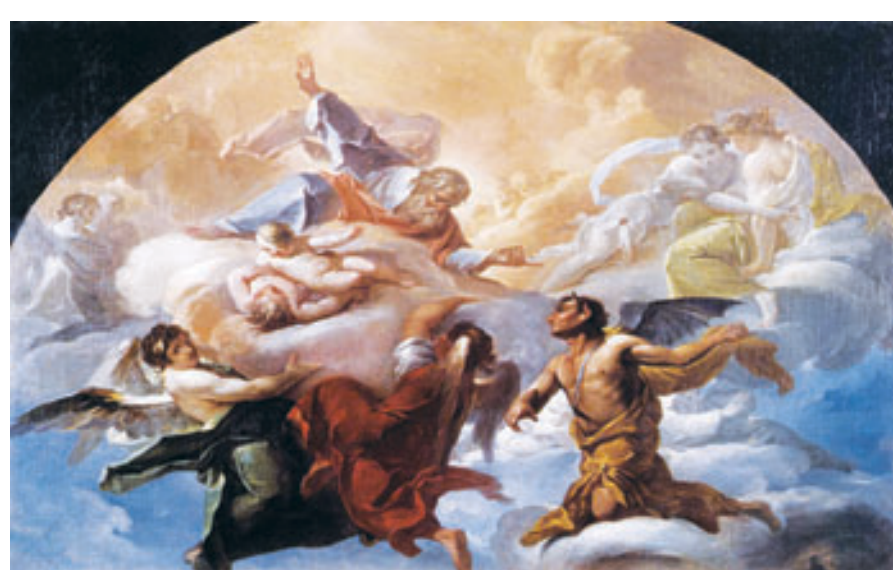
마귀에 대한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나라마다 흡혈귀는 있지만 생김새는 각기 다르다. 불가리아의 흡혈귀는 콧구멍이 하나요, 바이에른의 흡혈귀는 한 쪽 눈을 뜨고 잔다. 알바니아의 흡혈귀는 두개골에 살이 없다. 빅토리아시대의 영국 흡혈귀 바니는 늑골을 드러낸 채 박쥐모양으로 날아다니며 잡지는 미녀의 피만을 노린다. 루마니아의 흡혈귀는 익히 알려진 드라큘라이다. 우리나라에도 피를 말리는 진드기 귀신이 있는데, 한번 보면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미녀다.

이와 같이 신과 마귀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형화된 모습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이나 마귀는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기도 한다.

제각기 다르게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신이나 마귀는 인간의 의식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삶의 이리저리란 육체적 정신적 환경과 조건, 다양한 인식 경험을 통해서 개개인마다 신과 마귀를 상상하고 개념화시키는 것이 다 다르다. 그렇다면 신과 마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면, 그 신과 마귀의 생김새와 속성이 왜 그러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피는 못 속인다"라는 속담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인간의 신체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피속에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속담은 옛 조상님들의 놀라운 직관과 통찰력에 의한 사실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신과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파헤쳐 보면, 바로 현재의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신과 마귀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神),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고, 빛이며, 선(善)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도 있는가? 인간도 똑같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마귀의 속성은 무엇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



가? 마귀는 파괴의 화신이고, 어둠이며 악(惡)의 상징이다. 이것도 똑같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 동서양의 대표적 경전인 성경이나 불경 등에 보면, 진리를 얻고자 수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이 반드시 나온다. 이것은 실제 마귀가 있어 나타나서 수도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자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복잡한 감정들이 들끓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 마귀라고 하는 유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인간이 움매이고 있는 욕망 즉, 권력의 욕망, 물질의 욕망, 식욕의 욕망, 애욕에 관한 것들이다.

성경 마태복음 4장1절에서 11절 내용을 살펴보자.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들더라."

불경 여러 곳에서도 석가모니가 정각(正覺)을 깨우치기 이전에 악마의 유혹을 받고 물리치는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 악마를 물리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 속에 끊임없는 양심의 소

리인 것이다. 불경에 라다라는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도대체 마(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직접 물을 적이 있다. 석가모니는 이 물음에 대하여 의미심장하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라다여! 색(色=물질)은 마다, 수(受=감정)는 마다, 상(相=표상)은 마다. 행(行=의지)은 마다. 또 식(識=의식)은 마다. 라다여, 그러니 그와 같이 관찰하고 나의 교법을 들은 제자들은 색에 있어 그 화(禍)를 멀리하고, 수에 있어 그 화를 멀리하고, 상(相)행(行)식(識)에 있어 그 화를 멀리해야 하느니라. 또한 나는 해메인(迷)의 생애를 거둬들이는 일이 없다고 밝게 알게 될 것이니라."

마귀란 마음속 악한 의식

여기서 마귀란,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그 어떤 악한 존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귀란 어디까지나 물질과 감정과 표상과 의지와 의식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악한 작용인 것이다. 이로써 마귀가 다른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이 남들이 안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마음이 대립하며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양심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욕심의 마음이 그것

이다. 양심을 선한 신의 상징인 하나님이라 정의할 수 있고, 욕심을 악한 신의 상징인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마음의 합이 세기 크기 폭 깊이의 정도 여하에 따라 오만 가지 생각(靈), 즉 망령(亡靈), 신(神)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세계 내에 무수한 신들이 있다면 다스 치더라도 정확하게 그 신을 분류해 본다면, 크게 이 두 신으로 정의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거론된 무수한 신들의 모습과 그 속성이 인간을 떠나 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바로 인간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념(想念)과 망상(妄想)이 빚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대체 무어냐고 묻는다면, 오직 하나님(양심)과 마귀(비양심)만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 세상은 신의 투쟁장소라는 것이다. 바로 우두머리 신이 거하는 집이 인간이요, 신의 우두머리가 인간 속에 있다. 인간은 확실히 양심(하나님)과 비양심(마귀)이 공존하여 다투는 처절한 신의 투쟁 장소라고 볼 수 있으며, 만일 양심이 비양심을 이기고 주장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비양심이 양심을 이기고 주장하는 가운데 고통과 죽음이 난무하는 죄악세상(마귀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